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2)

2009년 4월~6월

안식일 성경교과

목 차

- 5 회개와 개심
- 10 그리스도인의 완전
- 15 침례
- 20 세족예식
- 25 성만찬 예식
- 31 2,300주야의 예언
- 36 성 소
- 41 대속죄일
- 46 결혼-신성한 제도
- 52 그리스도인 가정
- 57 참된 교육
- 62 예언의 신
- 67 예언에 나타나는 세계의 4대제국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 [] 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저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행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쇄 : 의성사

전화 : (054) 435-1843

070-8236-1843

팩스 : (054) 434-4521

1999년 3기 부터 ~ 현재까지 교과 살펴보기

www.sdarm.or.kr

1999년-3기 셋째 천사의 기별
1999년-4기 다른 천사

2000년-1기 이사야서로부터 배울 교훈
2000년-2기 예레미야서에서 배울 교훈
2000년-3기 에스겔서에서 배울 교훈
2000년-4기 다니엘서에서 배울 교훈

2001년-1기 요한계시록 I
2001년-2기 요한계시록 II
2001년-3기 요한계시록 III
2001년-4기 요한계시록 IV

2002년-1기 투쟁하는 교회
2002년-2기 지혜자의 품성
2002년-3기 그리스도인 청년
2002년-4기 그리스도인 가정

2003년-1기 암흑시대와 개혁
2003년-2기 하나님과 동행한 예복
2003년-3기 기도의 능력
2003년-4기 영속적인 언약

2004년-1기 시골생활
2004년-2기 믿음의 조상들
2004년-3기 요한복음 I
2004년-4기 요한복음 II

2005년-1기 그리스도인의 품성 I
2005년-2기 그리스도인의 품성 II
2005년-3기 그리스도인의 품성 III
2005년-4기 그리스도인의 품성 IV

2006년-1기 영원을 위해 함께 준비함
2006년-2기 자유의 율법
2006년-3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006년-4기 낙원

2007년-1기 건강 개혁자
2007년-2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2007년-3기 승리하는 비결들
2007년-4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2008년-1기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2008년-2기 영원을 위해 교육함
2008년-3기 언약케를 맨 백성
2008년-4기 도피성

2009년-1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I
2009년-2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II
2009년-3기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III
2009년-4기

2010년-1기
2010년-2기
2010년-3기
2010년-4기

서문

이번 기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주제의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 *대총회 매일 회보*, 1893.1.29.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극히 중요한 기본적인 많은 진리들이 있다. 이 영광스런 진리들은 철저히 파악되고 명상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에 대한 단순한 피상적인 지식은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해야 하는데 이는 그럴 때만이 채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마 5:6].

“우리가 의심할 여지없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반면,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순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아주 드물다. 진리를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감동이나 관념이나 상상, 혹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형성된 분석을 개심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믿음은 살아있고 내재하는 원칙이다. 믿음의 대상은 진리이며 거룩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진리이다. 진지하고 구원하는 믿음은 회개와 개심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계속 양심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에 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에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엄숙한 기별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목사들에게만 위탁된 것이 아니다. 결코 목회직에 부르심을 받지 않을 남녀들이 그들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3.11.27.

이 주제들은 우리의 구원에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이 기본적인 교리의 교훈을 통해 가르쳐진 원칙들은 우리의 매일의 경험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며 각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 남은 시간은 짧는데 그럼에도 우리 앞에는 구원하는 진리가 크게 어둡고 무지한 세상이 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눅 18:8].

이런 가치 있는 교훈들이 귀중한 축복이 되도록 계속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있는 충실한 영혼들에게 빛과 힘의 근원이 되도록 열렬히 기도드린다.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벨리즈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전 세계의 각처에 있는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벨리즈는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 남동부 연안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이다. 북쪽으로 멕시코, 서쪽으로 과테말라와 접하고, 남쪽으로 온두라스만(灣), 동쪽으로 카리브해에 면해 있으며 280km의 해안선에 국토면적 22,965km²로서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에 이어 가장 작은 나라이며 인구는 겨우 297,000명에 불과하다.

이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부터 유카탄 반도에 번영하고 있었던 마야 원주민에 의한 문화는 14세기까지 급속히 쇠퇴하고, 16세기에는 에스파냐령(領)으로서 멕시코 부왕령(副王領)에 편입되었다. 그 후 17세기에 영국인이 입식(入植)을 시작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에스파냐와 충돌, 1798년에 이르러 영국인 입식자가 에스파냐군(軍)을 격파하고, 1862년 영국 왕실 식민지로 편입시켜 자메이카 총독(總督)의 관할에 두었다. 1884년에는 자메이카에서 분리하여 직할식민지가 되었다. 1954년 헌법을 제정하고 64년 완전한 내각제도와 입법기관을 갖는 내정자치권(內政自治權)이 인정되고, 다시 73년에는 그 때까지 사용해 왔던 명칭 ‘영령 온두라스’를 ‘벨리즈’로 개칭하였다. 1821년의 독립 이래 영유권을 주장해 오던 과테말라와 영국 등 3개국 회담의 결과 1981년 9월 독립하게 되었다.

개혁운동사업은 1994년에 온두라스로부터 한 형제가 성경교사로서 이곳에 부임하므로 시작되었으며 곧 이어 대회가 조직되었고 2002년도에 종교법인으로서 정부에 등록되었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우리 형제들은 예배할 집을 전세로 빌려 사용해 왔으나 예배드릴 장소가 너무 비좁게 되었다. 이 나라에서 빛의 등대로서 대회 선교 본부를 가질 필요를 깨닫고 우리는 벨리즈 시내에 좋은 땅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축을 시작할 토지는 확보되었으나 이곳 형제들의 많은 희생에도 건물을 지을 재정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벨리즈를 위해 배정된 이번 첫 번째 안식일 연금이 수합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계획한 목적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벨리즈에 있는 형제자매들로부터-

회개와 개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행 3:19].

“진지하고 구원하는 믿음은 회개와 개심으로 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계속적이고 의식적인 신뢰이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에 있다.” -리뷰 앤드 해럴드, 1883.11.27.

참조할 연구교재: 정로의 계단, 12-26, 49-55.

일요일

3월 29일

1. 인간의 진정한 본성

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엡 2:1-3; 골 2:13.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믿음으로 살리라, 87.

나. 무엇이 모든 인간의 상태인가? 롬 3:10-18.

“하나님의 영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와같이 영성과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걱정과 동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하다. 인간의 심령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능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이 얼마나 심한 눈멀음인가! 빛을 어둠으로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심한 눈멀음인가!” -교회증언 4권, 88.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며 자신에 대한 이같은 지식은 우리로 통회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죄사함과 평강을 얻을 수 있기 전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영문시조, 1902.4.9.

2. 죄인의 필요

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처럼 무슨 중요한 진리가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가? 눅 18:10-14; 시 51:17.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세리는 멀리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 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 실물교훈, 151.

“죄인이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회개로 그분께 나오는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다.” -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370.

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 외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사 64:6; 욥 14:4.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 14:4).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7).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意志力)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分限)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 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動機)를 깨끗케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 정로의 계단, 18.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기를 그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야 하며 그분과 협력하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 원고모음 10권, 11.

3. 죄를 슬퍼함

가.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달으면 무엇이라고 외칠 것인가? 롬 7:24; 시 51:1-3. 참된 회개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고후 7:10.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23.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의 첫 번째 열매중 하나이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그 죄됨을 알기까지는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며 또한 마음으로부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생애 속에 참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는 당신의 구속받은 신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무한히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과정이다.” -영문시조, 1905.6.28.

나. 일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요일 1:9; 롬 10:9.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고치거나 우리의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길고 지루한 순례를 하거나 고통스런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이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구하게 하고자 주어진 귀중한 약속이다.” -교회중언 5권, 63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직무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사유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구주께 고정시키고, 그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충만한 안전감을 가질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의 생애, 45.

“그대들이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그대들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51.

4. 개심

가. 무슨 은혜로운 초청이 구원에 대한 그 자신의 필요를 느끼는 각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사 1:18; 55:6, 7.

“하늘 궁정에 계신 우리 구주께서는 서서서 세상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초청을 하고 계신다. 피곤하고 가련하며 굶주린 자들이여, 오라.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병든 영혼들이여, 오라.” -영문시조, 1875.8.5.

“죄인이 죄를 자각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하심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예수께서 그를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회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다. 가장 냉담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1.9.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의사를 강제하지는 않으시나니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정로의 계단, 34.

나.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주저할 때 무슨 위험이 존재하는가? 히 3:15; 암 8:11, 12; 눅 13:25-27.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앓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의 애소(哀訴)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위험-이니 과연 이러한 지체는 사실상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覺悟)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32, 33.

“사람은 그의 위험을 인정한다. 그는 품성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는 마음에 자극을 받고 두려움을 느낀다.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품성의 결함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생애를 변화시킬까를 생각하게 된다. 자복과 회개로 그는 개혁하고자 하는 그의 갈망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며 만일 그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가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잘못을 고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동안 죄인은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행위로 나타낸다.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일치하여 행동하며 그의 개심은 진정에서 우러나온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4.7.7.

5. 거듭남

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을 말하라. 요 3:1-8. 그 회견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니고데모는 [쳐다보고 살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 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 *시대의 소망*, 175.

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요 1:12, 13; 고후 5:17; 벧후 1:3,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신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 23)를 맺힐 것이다. 저들은 다시는 이전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그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은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 *정로의 계단*, 58.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찌어질 것을 피하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 *교회증언* 9권, 15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6:51

1. 우리들 속에 막연히 “선함”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왜 결함이 있는가?
2. 비유에서 왜 세리는 의롭다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는가?
3. 무엇이 진정한 회개를 특징짓는가?
4. 무엇이 참된 개심인가?
5. 거듭난 자들 속에 무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오직 완전만이 하늘의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고귀한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도 그들이 거하고 있는 적은 영역 안에서 완전해야 한다.” -예언의 신 2권, 225.

참조할 연구교재: 성화된 생애, 80-88.

일요일

4월 5일

1.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심

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심으로 당신의 창조사업을 마치셨을 때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는가? 창 1:31; 전 7:29.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큰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 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 교육, 63, 64.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유인(誘因)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9.

나. 아담이 최고의 지적 능력과 함께 생명의 모든 국면에서 완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창 2:19, 20; 시 8:4-6.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며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52.

2. 완전을 잃어버림

가. 세상이 아직도 요람기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었는가? 창 6:5, 11, 12.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시대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세계는 그 초기에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부조와 선지자, 92.

“홍수 전 거민들은 먹고 마시는 데 부절제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에게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들은 육식을 하고 싶어 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타락한 식욕을 무제한으로 방종하기까지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무 부패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오염된 지구를 홍수로 정결케 하셨다.” -건강에 관한 권면, 109.

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롬 1:21-32.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품성의 수준은 죄악된 인간성의 수준까지 저락되었다. 그런 결과로 그들은 더럽혀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91.

3. 인류의 회복

가. 인간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늘 궁정에서 무슨 계획이 세워졌는가? 욥 33:24, 26-28; 막 10:45.

“하나님은 인류를 위한 동정으로 격동되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그분들 자신을 드리셨다. 이 계획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시기로 결정되었다.”
-건강에 관한 권면, 222.

“아담의 죄가 인류를 속절없는 재앙으로 몰아넣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두 번째 은혜의 기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구속의 계획에서 그 계획에 그들 자신을 적용시키는 사람들을 위해 피할 길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를 위해 도움을 마련하셨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이 있으며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고 조금 열린 문을 통해 내부의 영광의 빛의 광선이 그것들을 받을 자들에게 비취어 나오고 있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 - 그리스도인 절제와 성경위생, 15, 16.

나. 인류를 타락한 상태 속으로 계속 함정에 빠뜨릴 사단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요 10:27-29; 6:39, 40; 빌 1:6.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단절되었으며 하늘과 땅과의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롬 8:3) 오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교통하셨다. 사단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이 회복되었음이 드러났다.” - 시대의 소망, 116.

“범죄자는 또 다른 시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 그분 자신이 범죄의 형벌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고 또한 신성을 입으신 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놀라서 전율하였다. 하늘의 피조물들은 거룩하신 고난자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베옷을 입었다.” - 그분을 높임, 153.

4. 궁극적인 목표

가.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받으면 우리를 완전케 이르도록 무슨 다른 단계들이 취해져야 하는가? 히 5:12-14; 6:1, 2; 벵후 3:18.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행동의 범위 안에서 그분께서 얻으신 그 완전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는 만사에 있어서 품성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이해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최고의 표준에 도달할 결심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고 약속한 그 능력에 온전히 의뢰해야만 한다.” - 의로 봉사, 253.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상한 행동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인간적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 앞에는 계속적인 발전의 진로가 열려 있다. 우리들에게는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고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는데 그 목적과 표준에는 선하고 순결하며 고귀하고 고상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 하늘 조정에서, 141.

나.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완전케 된 자를 찾으러 오시는가? 고전 1:8; 살전 5:23; 엡 5:27; 벵후 3:14.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한 사람의 품성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귀한 유예의 시간이 우리 품성의 옷을 씻고 그것을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하여 향상시키도록 주어졌다.” - 그리스도인 교육, 237.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야 한다. 우리의 시야는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편에서 있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고전 3:9]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도록 배우기를 갈망하신다. 자아는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는 없다. 하늘에는 품성 속에 있는 결함들을 정복할 장소가 없다.” - 청년 지도자, 1900.10.25.

5. 완전에 도달함

가. 어린양의 피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하는 자들에게 무슨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는가? 마 5:8; 계 7:14, 15; 요일 3:2, 3.

“예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사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더욱 분명하게 식별한다.” -*예언의 신* 2권, 208, 209.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27.

나. 완전을 위해 노력하는 각 사람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벰전 1:9; 살전 5:9; 사 25:9.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이와 같이 하여 우리의 품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일치하면서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주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귀중한 은혜의 시기에 각 영혼은 가장 열렬히 노력하라.” -*청년 지도자*, 1893.9.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6:57

1.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 독특함을 갖는가?
2. 홍수와 소돔의 멸망이 왜 필요했는가?
3. 타락한 인류를 위한 유일의 소망은 무엇인가?
4.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얻어야 할 도덕적 완전과 이 완전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라.
5.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침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5, 16].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응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으셨다.” -교회증언 6권, 91.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97-108, 167-177.

일요일

4월 12일

1. 침례 요한

가. 신약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침례자는 누구였으며 그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마 3:1-6.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 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 깊은 실물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시대의 소망*, 104.

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광야에 몰려 들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무슨 기별을 주었는가? 마 3:7-10.

“요한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에게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잔인성은, 그들이 의롭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치명적인 저주가 되는 독사의 자손임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은 광야의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신은 그들을 각성시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수 있었다.” -*시대의 소망*, 106, 107.

2. 예수님의 침례

가.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광야에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예수께서도 오셨다. 예수께서는 왜 오셨는가? 마 3:13-15.

“예수께서는 생애와 경건함을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었다. 그는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7.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 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의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 *시대의 소망*, 111.

나. 예수께서 물에서 나오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 3:16, 17.

“새롭고 중대한 시대가 [예수님] 앞에 공개되고 있었으며 그분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의 엄숙함과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제부터 감당하셔야 할 더 무거운 짐들이 그분 앞에 놓여 있었다. 그분의 침례는 그분의 공생애의 첫 번째 행동이었으며 그분이 그들의 짐을 지시고 그분 자신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셔야 했다. 그분의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성의 팔로는 타락한 인류를 꺼안으시고 그분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들고 계시다.” - *청년 지도자*, 1874.3.1.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일이 결코 없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계시는 구세주에게 보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해 주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 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빛과 영광의 광채가 거기서 나와 비둘기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불타는 황금 같은 모습이였다. 비둘기 형상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부드러움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천둥이 울리고 열린 하늘로부터 번개가 번쩍였다. 그리고 한 음성이 거기서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께서 침례 받으신 때에 중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들의 대치물과 담보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받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호와와 음성이 영원히 보증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으며 당신의 아들의 중재를 통하여 인간들의 기도에 하늘이 열려 있다. - *청년 지도자*, 1874. 3. 1.

3. 물로 거듭남

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면담에서 각 사람에게 유익한 무슨 진리가 제시되었는가?
 요 3:5-7.

“예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도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교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려야 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 *시대의 소망*, 171.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임을 알았다.” - *시대의 소망*, 172.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어떤 진리의 섬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의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감화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 *시대의 소망*, 173.

“성령의 능력은 사람 전체를 변화시킨다. 이 변화가 새로나게 만든다.” - *영문시조*, 1883.11.15.

나. “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롬 6:3-7; 요 1:12, 13.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 *교회증언* 6권, 91.

“죄에 대한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은 니고데모가 구원 받기 위하여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새로남을 통한 첫 번째 단계들이다.” - *그분을 높임*, 79.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이 세분의 크고 무한하신 능력은 만일 우리가 그분들과 협력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연합하여 서약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표상으로 물에서 올라온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도록 새로난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 - *대중회 회보*, 1901.4.4.

4. 새로운 피조물

가.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때에 우리는 무슨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가? 고후 6:14-18.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가 전능하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어떤 약속인가! 그대들이 왕가의 일원이 되며,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대들을 위한 보증이다.” - 교회증언 2권, 592.

“그대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할 때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그분의 팔은 그대를 영접하기 위하여 펼쳐져 있다. 그들에게서 나와서 분리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대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가! 이것은 어떤 혈연적 유대보다 더 거룩하고 더 고상하지 않는가! 만일, 그대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형제와 아내와 자녀들을 버려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친구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신다. 그대는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들의 하늘을 통치하시는 왕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대는 여기에 약속된 것보다 더욱 고상한 위치를 바랄 수 있는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 교회증언 1권, 510.

나.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의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고후 5:17; 벰전 1:22, 23; 2:1, 2.

“교만은 영혼에서 사라지고 이기심은 뿌리채 뽑힌다. 성급하고 걱정적인 성질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주관하지 않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시기 때문이다.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라. 거만한 말을 그대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에 의해 행동들이 저울질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영문시조, 1892.9.26.

“이전의 본성, 곧 혈육으로 나고 육신에 속한 의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낡은 방법들, 유전적인 기질들, 이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물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성향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로 거듭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 마라나타, 237.

5. 하나님의 주관아래 놓임

가. 거듭난 영혼들은 무슨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그들에게 무슨 약속이 주어지는가?
마 28:19, 20. 그들에게 무슨 특권과 책임이 있게 되는가? 골 3:1-3.

“그리스도인들이 엄숙한 침례를 받게 될 때 주님께서는 저들이 당신께 진실하겠다고 약속하는 서원을 기록하신다... 저들은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지킬 것을 선서한다. 이제부터 저들은 중생의 길을 걷는다. 저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 또한 저들은 부정직한 방법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저들은 하늘 왕국의 법칙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만일 저들이 저희가 한 서원에 끝까지 진실하다면 저들은 은혜와 권능을 받아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 복음전도, 307, 308.

“침례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 하늘의 이 세분의 크신 권세는 이 의식에 순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효하도록 그분들 자신이 서약하시며 그때에 그분들이 세우신 서약을 충실히 지키신다.” — 원고모음 6권, 27.

“그대는 타락으로부터 그대를 지켜 줄 수 있는 하늘의 가장 거룩하신 삼위의 인정과 능력 아래 서게 된다. 그대는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나타내야 하며, 그대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어 지게 된다.” — 원고모음 7권, 267.

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입양될 때 우리에게 무슨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는가? 롬 8:16, 17; 갈 3:26-29; 4:6, 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03

1. 침례요한은 그에게 온 자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었는가?
2. 예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3. 니고데모와의 그리스도의 면담은 우리를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가?
4. 침례는 한 영혼의 생애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5. 삼위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의 침례에서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세족예식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6-28].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이 실천하도록 세족예식을 명하셨다. 주께서는 이 예식을 성만찬 예식과 연결시키셨다.” - 영문시조, 1880.3.25.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642-651.

일요일

4월 19일

1.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심

가.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요 13:1; 15:12, 13.

“하늘의 교사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키셨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인간들에게 자비와 사랑, 그리고 피조물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인성을 쓰셨다.” - *안식일 학교 사업에 관한 증언*, 39, 40.

나. 세족예식을 위해 제자들이 함께 왔을 때 예수님과 달리 무슨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가? 눅 22:24.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 *시대의 소망*, 409.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하였던 바 저희 형제들이 더욱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 *시대의 소망*, 643, 644.

2. 주님의 모본

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모든 제자들을 놀라게 했는가? 요 13:3-5.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며 이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 곳에 있어 발씻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나 종이 그 곳에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 *시대의 소망*, 644.

“[제자들을] 사랑하신 [구주께서는] 일어나셔서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셨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며 부끄러워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7.5.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 *시대의 소망*, 644.

나. 베드로의 목적과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말하라. 요 13:6-9.

“베드로는 그의 더럽혀진 발이 그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신 분의 손에 접촉되는 것을 피하였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죄를 미워하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져가 접촉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하신 영을 슬프시게 하는가! 그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또한 상호간에 거룩히 교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7.5.

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 13:10.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 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죄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離間)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 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 *시대의 소망*, 646.

3. 먼지 묻은 발

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모든 신자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는 끊임 없는 원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잠 10:12. 무엇이 그리스도의 행동의 적극적인 결과를 드러내는가?

“분쟁은 항상 미움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씻어 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연합과 서로의 사랑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들은 온유하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최고의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랑의 향기로운 감정을 깊이 또한 충만히 갖고 저희 주님과 서로를 위해 마지막 성만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7.5.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리스도의 행동은 신성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행하신 그분의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높고자 하는 여지를 없게 하셨다. 이 의식은 그의 형제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형제에게 가져다 주는데 있었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8.6.14.

나. 한 형제가 다른 형제의 발을 씻도록 겸손함을 주므로 주께서는 우리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시 51:2, 7; 히 10:22.

“주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일은 주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 *시대의 소망*, 646.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 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 *정로의 계단*, 49, 50.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이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겸손한 봉사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의 청결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시키셨다. 만약 마음이 청결케 되면 발을 씻는 이 일이 그 사실을 드러내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는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고 하셨다. 그는 그 반역의 마음을 그곳까지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그의 주를 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 모두에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이 영혼으로부터 도덕적인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 *믿음으로 살리라*, 299.

4. 겸손예식

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들에게 무슨 축복들이 약속되었는가? 대하 7:14; 사 57:15; 마 23:12; 약 4:6, 10.

“모든 인간적인 야망, 모든 자랑거리는 티끌 가운데 버려야 한다. 자아, 죄 많은 자아는 낮추어져야 하고 높여져서는 안 된다.” - 교회증언 8권, 234.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의견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필요를 더욱 적게 느낄 것이다. 참된 미덕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의는 언제나 인간들의 명예와 칭찬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들은 거짓 표준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들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 세운다.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우실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8.8.7.

“은유하고 겸손히 그들의 의무의 과정을 수행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귀염받음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들의 상급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0.7.22.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이 실천하도록 세족예식을 명하셨다. 주께서는 이 예식을 성만찬 예식과 연결시키셨다. 주께서는 이 예식이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한 상호간에 그들 자신의 마음의 참된 감각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의도하셨다. 만일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겸손예식에 참여함으로 참으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이 참으로 속히 그들 자신의 교만을 알 수 있을 것이었다. 만일 이기심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이 겸손예식에 참여하므로 더욱 속히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이 예식은 서로의 죄를 자백하며 인내심을 증가시키며 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기념하는 엄숙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 영문시조, 1880.3.25.

나. 무엇이 세족예식의 참된 의미이며 예수께서 이 예식에서 행하도록 명하신 것은 무엇인가? 요 13:12-17.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性癖)이 있어서 이것들은 때때로 악한 억측들과 정신적 괴로움의 결과를 초래한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은 이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 시대의 소망, 650.

5.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가.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포함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무엇을 예보하셨는가?
요 13:21-26.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리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순간동안 사라졌던 옛 감정이 다시 그를 지배하였다.” - 시대의 소망, 645.

나. 유다의 슬픈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며 발을 씻기는 엄숙한 예식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행 1:15-20.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둠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 - 사도행적, 558.

“검은 예식을 행하려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영혼의 고상한 원칙들은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것이 마음과 마음을 이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형제로서 사랑하고, 친절하며, 매일의 봉사에서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되도록 인도함을 받는다.” - 성경주석 5권, 1139.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09

1. 다락방에서의 그리스도의 태도는 당신의 제자들의 태도와 얼마나 크게 달랐는가?
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왜 그들에게 그런 충격을 주었는가?
3. 그리스도의 행동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4.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검은색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5.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결과로서 무슨 축복들이 주어지는가?

성만찬 예식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전 10:16].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상상 가운데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 *시대의 소망*, 661.

참조할 연구교재: *시대의 소망*, 652-661, 151, 152.

일요일

4월 26일

1. 유월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무슨 중요한 의식이 제정되었는가? 출 12:2-6.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히브리 나라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마지막 밤,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애굽에 최후의 형벌이 내리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의 집에 모으도록 지시하셨다. 그들은 문설주에 살해된 어린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구운 어린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였다.” - *시대의 소망*, 76, 77.

나. 유월절이 기쁨의 파티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아는가? 출 12:7-11.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는가? 출 12:43-49.

“애굽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이 많았으며, 그들은 이제 멸망시키는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집에서 피난처를 얻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그들은 그 후부터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서약하였다.” - *부조와 선지자*, 279.

2. 전환의 시간

가.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참여하셨을 때 그분은 무슨 의식을 제정하셨는가? 눅 22:19, 20; 고전 11:23-26.

“구세주께서 갈바리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을 때에 유월절의 의의는 끝나고 성만찬 제도가 유월절이 예표하던 동일한 사건의 기념으로 제정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539.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해마다 자손들이 이 의식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 역사를 되풀이 해서 말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시대의 소망, 652, 653.

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무슨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고전 11:27-30; 고후 13:5.

“우리는 면밀히 자기를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과연 나는 마음이 건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패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는가, 혹은 외양으로는 새 옷을 입었으나 아직도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대 자신을 통제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이르라. 그리고 어떤 숨은 죄악이나 어떤 부정이나 어떤 포기하지 않은 우상이 남아 있는지 하나님의 빛으로 보는 것과 같이 살펴보라. 기도하라. 그대들이 사단의 계교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경솔하고 부주의하고 허황된 망상에 빠져서 자신의 양심을 진정시키려고 하여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게 되지 않도록 전에 없이 열렬하게 기도하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83, 84.

“거룩한 순찰자가 이 때에 하늘에서 내려와 [발을 씻기]는 의식이 심령을 살피는 의식, 죄를 뉘우치는 의식, 그리고 사죄의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다...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남용하고 친절을 등한히 여긴 일들이 마음에 떠오른다. 사랑이란 귀중한 나무를 밀어낸 쓴 뿌리들이 나타난다. 품성의 결합과 의무에 대한 태만과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과 동포들을 냉정하게 대하는 일들이 기억에 떠오른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으로 나타나 보인다.” -시대의 소망, 650, 651.

3. “나를 기념하라”

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눅 22:19, 20; 고전 11:24, 25.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곧 1,50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유월절 양을 잡아오던 바로 그 달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잡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99.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 그것으로 인류를 위한 당신의 크신 희생을 기념하는 표로서 당신의 교회에게 주셨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야말로 두 개의 제도 곧 두 개의 큰 축제 사이에 있는 전환점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한 가지 제도는 영원히 폐하여 질 것이었고, 주님께서 방금 제정하신 또 하나의 다른 제도는 먼저 것을 대신하는 동시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표로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야 할 것이었다.” - 복음전도, 273, 274.

나. 성만찬 예식은 얼마나 자주 또한 언제까지 행해져야 하는가? 고전 11:26.

“이 [성스러운] 만찬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의 희생을 우리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하여 자주 행하도록 계획되었다.” -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152.

“주의 성만찬은 때때로, 혹은 해마다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행해졌던 유월절보다 더욱 자주 행해야 할 것이었다. 이 엄숙한 예식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던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하여 독생자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리스도의 속죄의 표상이었다. - 예언의 신 1권, 203.

“나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만을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여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분의 상하신 몸을 표상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떡 조각을 먹도록 떼어주시고 당신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게 하신 때를 회상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분별 있게 행하여 이 예식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며 이 예식에 참여할 때는 가능한 불신자와 분리해서 행해져야만 한다.” - 현대진리, 1850.11.1.

4. 그리스도의 몸과 피

가. 주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하실 때 무슨 진리를 명백하게 하셨는가? 요 6:32-35.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는 한 우리 몸의 생명을 개별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영양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으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리뷰 앤드 해럴드, 1898.6.7.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시대의 소망, 660.

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 6:53-58.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시대의 소망, 389.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 6:54, 56, 57) 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0, 661.

5. 큰 만찬

가. 무슨 영광스러운 사건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충성을 유지하도록 격려해야 하는가? 계 19:6-9.

“동정이 많으신 구주 예수께서는 우리 세상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 되었나이다’ [눅 14:17]라고 초청장을 보내신다. 그대는 초청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모방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 초청이 주어졌으며 주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셔서 그대의 심령 속에 소망과 믿음과 거룩한 신뢰를 불붙게 하신다. 주께서는 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명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그대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다. 그분은 그대 앞에 낙원의 영광을 공개하시는데 질문은 이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초청을 받을 것인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95.11.5.

나. 무슨 은혜로운 초청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며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는가? 사 55:1-3; 계 22:17.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오라는 마지막 초청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그 초청을 듣지 못한 많은 곳에 그 초청을 들려주어야 한다.” -복음 사역자, 64.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예수께서는 소돔이 멸망당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오라는 복음의 초청을 들은 후에 돌아서서 그 하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의 죄가 바로 그것이다. 복음잔치에의 초청은 자주 변명으로 거절당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5.11.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15

1. 성만찬은 어떻게 고대 유월절 음식과 관계가 있는가?
2.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3. 이 음식은 왜 교인들이 불신자와 분리해서 행해야 하는가?
4. 매일의 무슨 경험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가?
5. 무슨 초청에 응하도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양편을 격려해야 하는가?

2009년 5월 9일 안식일

위스퍼링 파인즈 크리스찬 학교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스퍼링 파인즈 크리스찬 학교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교육기관은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동부 30마일의 소나무 숲 속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들의 지덕체를 계발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을 갖고 성경을 기초로 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많은 신자들의 열렬한 기도와 노력으로 입학생들이 증가하여 그들을 받기에는 학교시설이 부족하게 되었다.

주께서 더 많은 귀중한 영혼들을 학교에 계속해서 보내주시므로 우리는 새로운 학교건물을 세울 필요를 크게 느끼고 있다. 현재 교실로서 사용되고 있는 방들과 이동 주택들은 오래되고 다소 부적당한 형편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질문할는지 모른다. 우리들은 부요한 백성이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시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하여 한적한 장소에 작은 학교들을 세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실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권면, 204.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제자매들이 희생모금을 했으나 견적된 예산[30만 달러]는 그들이 모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에게 관대한 연금으로 사랑의 손길을 펴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대들이 그대들의 선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위스퍼링 파인즈 크리스찬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북부 캘리포니아 주의 신자들은 그대들의 형제애로서의 호의를 바라며 감사를 드린다. 주께서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업을 돕고 연금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위스퍼링 파인즈 크리스찬 학교 교장, 위슨 S. 바로스-

2,300주야의 예언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단 8:14].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22.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317-330, 409-422.

일요일

5월 3일

1. 다니엘 8장의 계시

가. 선지자 다니엘은 세상 역사의 사건들의 진상에 관하여 무엇을 보았는가? 단 8:3-14. 가브리엘 천사는 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단 8:20-25.

“빛이 장래의 사건에 비추었고... 다니엘은 그 계시의 뜻을 알고자 열심히 간구하였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칠십년 동안의 포로 기간과 하늘의 방문객이 이상 중에 선언한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여지기 전에 이천삼백년이 경과할 것이라고 한 말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없었다.” - *선지자와 왕*, 554.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장래의 신비들을 알고 표상과 상징들을 통하여 세상 끝 날까지의 세상 역사를 망라하는 사건들을 오는 세대들을 위하여 기록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 *선지자와 왕*, 485.

나. 천사는 수양과 수염소와 뿔들을 설명했다. 계시의 어떤 부분이 선지자에게 설명되지 않았는가? 단 8:26, 27.

“이 때에 천사는 다니엘이 8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점, 곧 때에 관한 것,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고 한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26.

2. 가브리엘이 설명함

가. 선지자의 열렬한 기도 후에 천사는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으며 이것은 오늘 날 우리를 위하여 왜 그렇게 중요한가? 단 9:20-23; 12:3, 4, 9, 10.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 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했다.”
-선지자와 왕, 547, 548.

나. 2,300주야는 어떻게 예언적인 기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또한 뚜렷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하는가? 겔 4:6; 민 14:34; 단 9:24-27.

“천사는 70주일의 기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7.3.21.

“이천삼백 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重建)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설명은 완전히 들어맞는다. 이천삼백년의 첫 부분인 483년, 곧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시대까지 미칠 것이었다. 그런데 기원후 27년에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다.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가 서기 34년이였다. 이로써 2,300년의 첫째 부분인 490년이 지나갔으므로 1810년이 남게 된다.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연장하면 1844년이 된다. 천사는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였다. 그 예언 중에 밝히 기록된 모든 사건은 지정된 때에 의심할 여지없이 다 성취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0.

3. 490년

가. 예언의 70주일은 무슨 목적으로 2,300주아에서 떼어내야 했는가? 단 9:25, 27[상단].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명한 후에 곧 이어서 한 첫말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기한을 정하였’다는 말은 ‘끊어 낸다’는 말이다. 천사는 칠십 주일(칠십 이레) 곧 490년을 특별히 유대인을 위하여 끊어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끊어 낼 것인가? 2,300일이 다니엘 8장에서 말한 유일의 기간이므로 70주일을 그 기간에서 끊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70주일은 2,300일의 일부분인 동시에,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천사는 70주일이 예루살렘을 증군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 영이 내린 때를 알 수만 있으면, 2,300일의 기산점(起算點)이 확정될 것이었다.

에스라서 7장에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완성된 형태의 조서는 기원전 457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내렸다(스 7:12-26 참조). 그러나 에스라서 6장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좇아’ 건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세 왕은 조서를 처음으로 만들고, 다시 확인하고, 완성시킴으로 2,300년의 시작을 알려 주는 예언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되었다. 조서가 완성된 기원전 457년을 칙령이 내린 때로 삼을 때 70주일에 관한 예언의 세부적인 사건들이 모두 성취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26, 327.

나. 예수께서는 언제 또한 어떻게 기름부음을 받으셨는가? 눅 3:1-3; 행 10:38; 마 3:16.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

“이 아닥사스다왕의 조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는 기원전 457년 가을이다. 그 때로부터 483년을 지나면 서기(西紀) 27년이 된다. 그 때에 이 예언이 틀림없이 성취되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 해 가을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 (행 10:38)다고 증거하였다. 구주께서도 친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 (눅 4:18)셨다고 말씀하셨다.” - 각 시대의 대쟁투, 327.

4. 70번째 주일

가. 예수께서 기쁨부음을 받으신 후와 70번째 주일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었는가? 단 9:27.

“이 1주일은 70주일의 마지막 1주일이다.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배정된 최후의 7년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 곧 서기 27년에서 34년까지의 기간에 그리스도 자신이, 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의 초청을 하였다. 사도들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5, 6)고 명령하셨다.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7, 328.

“또한 70 주일의 중간에 메시야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때가 서기 34년이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0.

나. 서기 31년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유대민족은 여전히 3년 반의 은혜의 기간을 가졌다. 70주일은 언제 끝났는가? 행 13:46-48.

“유대인을 위하여 배당된 70주일, 곧 490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기 34년에 끝났다. 그 때에 유대의 산헤드린이 취한 태도, 곧 스테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복음을 거절한 것은 국가로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되었다. 그리하여 복음은 그 택함받은 국민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제자들은 박해 때문에 부득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 (행 8:4, 5)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8.

“많은 유대인 회심자들이 이방인에 대하여 닫았던 문을 이제 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할례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이 유대인 제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였다.” -사도행적, 136.

5. 성소가 정결하게 됨

가. 2,300주야는 언제까지 확대되었는가? 그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단 8:14.

“2,300일에서 70주일, 곧 490일을 떼어내면 1810일이 남는다. 490일 후에 계속하여 1810일도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서기 34년에다 1810년을 가하면 1844년이 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은 서기 1844년에 마치게 된다. 그런데 이 긴 예언적 기간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증거하였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때에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는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는 시기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28.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2.

나. 현재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히 4:14-16; 7:25; 9:11, 12, 23, 24; 계 3:7, 8.

“1844년에 있는 2,300주야의 끝이 중대한 위기를 특징지었다. 그리고 사람이 과거 1,800년 동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희망과 은혜의 문이 닫혀진 것은 사실이나 한 다른 문이 열리어 지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한 가지 봉사가 마쳐진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봉사를 행하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었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29, 430.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21

1. 단 8:14의 예언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2. 예언적으로 2,300주야가 실제적으로는 2,300년임을 무슨 증거가 보여주는가?
3.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동안에 년-일 원칙이 옹호됨을 무슨 증거가 보여주는가?
4. 서기 34년은 예언적으로 왜 의미가 있는가?
5. 1844년 이래 그리스도인 생애에 무슨 일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가?

성 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히 8:1, 2].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實體)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14.

참조할 연구교재: 부조와 선지자, 343-358.

일요일

5월 10일

1. 성소의 목적

가.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어디에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가? 출 25:8; 대하 6:1, 2; 사 66:1.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에 산에서 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理想)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산에서 그들에게 식양(式樣)이 보여진 바 되었다.” - 시대의 소망, 208, 209.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344.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집은 아담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어떤 지역에 소수의 신자들밖에 없다면 아담하면서도 작은 집을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헌당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대들의 손님으로 오시도록 초청하라.” - 교회증언 5권, 269.

나. 무엇이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된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왔는가? 출 29:45; 사 57:15.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 시대의 소망, 161.

2. 지상성소

가. 모세가 성소를 지을 과업을 받았을 때 그에게 무슨 계획이 보여졌는가? 출 25:9, 40; 히 8:5. 그 모든 것은 무엇의 모형이었는가? 히 8:1, 2.

“성소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준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소라는 말은 첫째,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둘째, 지상의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이다.” - *믿음으로 살리라*, 202.

나. 장막은 어떻게 나뉘어 졌으며 매일 그곳에서 무슨 의식이 행해졌는가? 겔 45:4; 히 9:2-5.

“건물은 금으로 싼 기둥에서 드리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두칸으로 나뉘어 졌고 이와 비슷한 휘장이 첫째칸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안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곳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를 이루었다. 이 칸에는 법궤 곧 안팎이 금으로도 금되어 있고 꼭대기가 금면류관 장식으로 둘러 있는 아카시아 나무궤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불리웠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웠다. 거룩한 궤의 뚜껑은 시은좌(속죄소)라고 불리웠다...

속죄소 위에는 쉼기나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 주셨다.“ - *부조와 선지자*, 347-349.

3. 속죄제

가. 부지중에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위해 무슨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제사장: 레 4:2-6; 회중: 레 4:13-15; 족장: 레 4:22-24; 평민: 레 4:27-29.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 17:11).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죄인의 빼앗긴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그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레 10:17)고 한 지시대로 제사장이 그 고기만 먹었다. 그 의식들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상징하였다.

그와 같은 일은 일 년 내내 매일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스라엘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는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8, 419.

나. 희생제도는 언제, 그리고 왜 제정되었는가? 창 4:3-5; 갈 3:19.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류를 돌이켜 다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큰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63.

4. 일반 제사장

가. 성소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에 의해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출 28:1; 29:4. 그들에게 무슨 명백한 명령이 주어졌는가? 레 10:9-11.

“주님 앞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은 항상 타고 있어서 꺼지지 않는 불 즉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모든 행사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또한 당신의 신성한 예배에 관계되는 모든 일은 당신의 거룩한 품성에 일치해야 한다는 분명한 지시를 주셨다. 그분을 거룩히 섬기는 일에 관하여 주신 분명한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했다.” - *절제*, 43.

“아론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드렸고,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였다.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은 그 희생 제물을 가납하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곧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제단 위의 제물을 살랐다.” - *부조와 선지자*, 359.

나.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얼마나 자주 드려야 했는가? 출 29:39. 우리의 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시 55:17.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 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리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 *부조와 선지자*, 353, 354.

5. 대제사장

- 가. 광야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누가 택함을 받았는가? 출 29:5-7. 무엇이 대제사장의 의무였는가? 히 9:25.

“일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은 가장 조심스럽고 엄숙한 준비를 마친 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지성소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가시적 영광이 머무는 곳이였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항상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고 백성들은 엄숙한 침묵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예언의 신* 1권, 274, 275.

- 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을 무엇을 해야 했는가? 레 23:27-32. 대속죄일은 하늘에서 언제 시작되었는가? 단 8:14; 사 22:12-14, 20-22 [계 3:7, 8 참조].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상징적인 성소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상 성소의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행사를 거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하며 저희 죄가 대속을 받고 저희 죄들을 도말함 받기 위하여 자복하여야만 하였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며 최종적이고도 되풀이할 수 없는 판결을 각자에게 언도하게 되는 이 대속죄 기간에 처한 우리에게 향한 요구가 추호라도 덜할 수 있을까?” -*가려뽑은 기별* 1권, 125.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 시간 7:27

1. 하나님을 경배할 성소를 가짐으로부터 무슨 축복이 임하는가?
2.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십계명]을 보고 그분께서 거하시는 거처[성소]를 보았다.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3. 희생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오늘날 그것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4. 우리가 조석예배를 게을리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 속죄일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대속죄일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레 23:27].

“일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의 봉사가 완결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355.

참조할 연구교재: 각 시대의 대쟁투, 479-491.

일요일

5월 17일

1. 죄를 위한 속죄

가.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슨 은혜로운 제도가 마련되었는가? 창 3:15, 21.

“아담이 순식간에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서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그에게 주십시오.’ 범죄로 인해 온 세상은 사망선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욥 33:24).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타락한 사람을 위해 죄가 되셨다.” -영문시조, 1900.6.27.

나. 무슨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아담이 첫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느꼈는가?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68.

2. 매일의 봉사

가. 성소에서의 일반 제사장들의 매일의 의무는 무엇이었는가? 민 28:4; 히 10:11.

“지상 성소의 봉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였고,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씩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하였다. 죄를 누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그의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8.

“조석마다 일년 된 어린양을 적당한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그 민족이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흠(이) 없’(출 12:5)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셨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로 가져온 모든 짐승들을 검사하여 흠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 거절해야 했다.” -부조와 선지자, 352.

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명함을 받았는가? 출 30:18-21; 40:30-32.

“그 제단과 성막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즐겨 바친 거울로 만들어진 대야가 있었는데 그것도 놋으로 되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에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이 대야에서 그들의 손발을 씻게 되어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347, 348.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발에 묻은 미량의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계속 가르쳐졌다.” -부조와 선지자, 350.

3. 지성소

가. 무엇이 두 장막을 분리시켰으며 지성소에는 무슨 기구들이 놓여 있었는가? 출 26:31-34; 히 9:3-5.

“진설한 떡상과 향단은 마치 연마한 정금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천장은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로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은 화려한 천으로 덮였었다. 둘째 휘장 안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 곧 거룩한 쉼기나가 있었다. 그 앞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4.

“이 [첫]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은 순금처럼 보였으며 그 곳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을 반사했다. 두개의 칸을 나누는 휘장은 영광스럽게 보였으며 색깔과 재료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아름다웠으며 거기에는 천사들을 표상하는 형상이 금으로 새겨져 있었다.” -영적선물 1권, 159.

나. 하나님께서 특히 성소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출 40:34, 35; 레 16:2.

“둘째 휘장 안에는 증거궤가 있었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 휘장이 거룩한 법궤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 휘장은 성소의 꼭대기까지 닿지는 않았다. 속죄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양쪽 칸에서 다 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첫째 칸에서는 보다 적은 정도 뿐이었다.

법궤 바로 앞 휘장으로 분리된 곳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었다. 이 향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이 친히 피우셨고 거룩한 향을 넣으므로 신성하게 보존되었으며 여기에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구름이 밤낮 성소에 가득하였다. 그 향기는 성소 주위 수십리에 퍼져 나갔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에는 속죄소를 향하여 보았다. 속죄소를 볼 수는 없었을지라도 속죄소가 거기에 있는 줄은 알았다. 향연이 구름과 같이 올라갈 때 여호와와 영광이 속죄소에 내려오고 지성소를 가득하게 하여 성소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 칸에 다 충만하여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성소의 문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언의 신 1권, 273, 274.

“그 법궤 위에는 법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가 있고, 순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두 그룹이 마주 서 있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사이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2.

4. 대제사장의 임무

가. 제철월 십일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레 16:29-31; 민 29:7.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 일 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19.

“칠월 십일에 대제사장은 안쪽 칸, 혹은 지성소에 들어갔으며 그곳은 어떤 다른 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그래도 들어가면 죽음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런 후 성소의 정결은 연중 봉사로 임무를 완전히 필하였다.” - *예언의 신* 4권, 263.

“모세의 규례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그날에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하여 버린 후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레 16:9-34 참조).” - *각 시대의 대쟁투*, 400.

나.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도록 요구되었는가? 레 16:2-6, 16.

“하나님께서서는 시온좌 앞에서 대제사장과 더불어 말씀하셨다.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보통 때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흔히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나 혹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하지나 않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두루마기에 달린 방울의 짙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가 나오게 되면 백성을 축복하였다.” - *예언의 신* 1권, 275.

“위대한 지존자께서 지성소를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거룩한 임명을 받은 자 외에는 어느 인간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룹의 날개들로 말미암아 가리운 바된 은혜의 보좌 위에는 그의 임재 하심에 대한 영원한 표상인 그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였으며 보석들이 박힌 대제사장의 흉패는 성막의 거룩한 주위로부터 여호와의 엄숙한 기별을 백성에게 알렸다. 천지의 조물주 되시는 거룩하신 분께서 이와같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뜻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이한 섭리인가!” - *리뷰 앤드 해럴드*, 1886.3.2.

5. 두 염소

가. 속죄일에 두 염소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속죄제로 드리도록 택함을 받은 염소에 게 무슨 일이 행해졌는가? 레 16:7, 8, 16.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 (레 16:8)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19.

나. 살도록 내 버려둔 아사셀 염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레 16:20-22. 두 염소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단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리므로 끝나게 될 것이다.” - 부조와 선지자, 358.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나왔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65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 시간 7:33

1. 모형과 실체의 속죄를 설명하라.
2. 성소봉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몇 가지 사실을 말하라.
3.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4. 성소의 봉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드러내는가?
5. 두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결혼-신성한 제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창 2:24].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창 2:24)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산상보훈, 63, 64.

참조할 연구교재: 산상보훈, 63-65.

일요일

5월 24일

1.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제정하심

가.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창 2:18, 21, 22. 하나님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히 13:4.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 이시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지적·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부조와 선지자, 46.

나.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엡 5:22-24; 골 3:18.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에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부조와 선지자, 46.

2. 즐거운 의식

가. 무슨 사건이 주께서 결혼제도를 인정하셨음을 보여주는가? 요 2:1, 2.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 흑암 가운데 하늘의 빛을 비추시려고 우리 세상에 오셨다. 그는 결혼제도가 거룩하다는 것을 남녀들로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가나에서의 그분의 임재는 이 제도를 존귀케 하셨다.” -원고모음 10권, 188.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성하고 거룩한] 제도를 파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고결함과 숭고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고 결혼관계를 거룩하게 하시므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거룩한 한 쌍의 부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 낙원을 창설하신 분께서는 결혼제도에 당신의 인을 치시고 에덴에서 첫 주례를 하셨다.” -원고모음 10권, 203.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산상보훈, 64.

나. 성경은 행복한 가정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시 128:1-6.

“성경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말한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식 잔치에 청함을 받았때 것처럼 즐거운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하심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자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는 하늘의 율법을 따라 행하여지는 인간의 깨끗한 잔치들을 결코 못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셔서 친히 높이시는 그런 모임에 그의 제자들이 참석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하신 후에도 많은 다른 잔치에 참석하셔서 당신의 임재하심과 교훈으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영문시조, 1899.8.30.

“만일,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소중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85, 86.

“생애의 연합이 되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간의 연합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피차 간에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교회증언 7권, 46.

3. 남편의 역할

가. 성경은 “가정의 띠”로서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엡 5:25, 28; 골 3:19.

“주께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 그의 아내의 보호자가 되도록 제정하셨다. 남편은 모든 가족들을 함께 매는 가정의 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으로 행사하셨다. 이와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되 교회의 큰 머리 되신 분을 모방하도록 하라.” - *믿음으로 살리라*, 259.

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그릇된 태도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 창 18:18, 19; 엡 6:4; 히 12:7-9.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끈기, 성실, 정직, 인내, 용기, 근면, 실제적 유용성(有用性) 등과 같은 엄격한 미덕들을 강요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싹싹한 태도로써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치료봉사*, 391.

“남편이 언제나 가장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의 남성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의 권위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절을 인용하여 듣게 하는 것은 그에게 대한 존경을 더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의 아내 그의 자녀들의 어머니에게 자기의 계획이 마치 그릇될 수 없는 양 그것들을 좇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를 더 남자답게 만들지는 못한다.” - *원고모음* 13권, 82.

“많은 남편들은 아내들이 흔히 온 종일 끊임없는 집안 살림살이에 얽매어서 겪는 염려와 난처한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흔히 근심 어린 눈살로 집으로 돌아오고 그 가족 사회에 명량한 햇빛을 가져오지 않는다. 식사가 제때에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흔히 주부, 간호원, 식모 그리고 하녀의 일을 혼자서 맡은 그 피로한 아내는 흠잡는 말을 듣는다. 그 엄격한 남편은 귀찮게 구는 아이를 어머니의 지친 팔에서 받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가족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서둘도록 은혜를 베풀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아버지의 팔에서 조용히 하지 않고 초조하여 못 견디게 굴면 자기가 마땅히 보살펴서 그를 조용하게 하고 달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끼는 일은 드물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녀의 성가심을 참았는지를 생각하려 하지 아니하고 참을성 없이 ‘자, 아기 어머니! 당신의 아이를 받으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그 아이는 아내의 아이일뿐 아니라 자기의 아이가 아닌가? 자기의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부과된 부담을 참을성 있게 담당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 아니겠는가?” - *재림신도의 가정*, 224, 225.

4. 가정의 여왕

가. 성경은 참되고 정숙한 그리스도인 아내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잠 18:22; 19:14; 31:10, 11, 30.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되므로, 남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위엄 있고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를 떨어뜨리게 하는 아내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아내의 소원과 뜻을 남편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내의 의무이다. 피차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판단에 우선권을 준다. 아내가 그의 상담자요 충고자요 보호자요 택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내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 *교회증언* 1권, 307, 308.

“많은 남편들은 ‘아내들이 복종하라’ 하는 데서 읽기를 그치지만 우리는 그 명령의 결론인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는 데까지 읽어야 한다.” - *원고모음* 13권, 74.

나. 주께서는 가정의 여왕에게 무엇을 금하셨는가? 벰전 3:1, 2; 빌 2:14.

“가정주부가 자기의 외적 의무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처하여 있는 종살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덜거릴 수도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의 보다 고상한 생활에 자신의 처지를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책임과 구속을 과장하여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놓인 성가신 일로 가득찬 시련들보다는 좀 더 다른 영역의 자유로운 행동들을 갈망하며 약간의 몽상에 젖기도 한다. 그는 공연히 다른 생활을 동경하면서 죄된 불만을 육성하여 자기의 가정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매우 불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참된 아내이며 어머니가 된 자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추구할 것이다. 그는 잘 정돈된 가정에서 그가 할 필요가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 자신의 손으로 행하는 것을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로 생각지 않으면서 품위있고 즐겁게 자기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 만일 그가 자기의 능력과 안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 의무를 힘써 행한다면 그는 자기의 남편을 자기 마음에 묶어 댈 것이요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모본을 따를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진 존경할 만한 남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건강개혁자*, 1877.8.1.

5. 평생의 끈

가. 결혼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도록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묶어 놓는가? 막 10:6-12; 롬 7:1-3; 고전 7:39.

“이 [결혼] 서약은 죽음의 손 이외는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띠로써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 놓는다.” - *교회증언* 4권, 507.

“오늘날의 결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풍기문란하지 않은가? 일간신문에는 계속되는 이혼의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예수께서는 노아홍수 이전의 상태에 ‘시집가고 장가가더라’고 언급하신 것이다.” - *원고모음*, 7권, 56.

나. 만일 남편과 아내가 불행하게 헤어진다면 두 가지 대안은 무엇인가? 말 2:13-16; 고전 7:10, 11.

“예수께서는 오류를 고치시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결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이스라엘의 교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신성한 결혼 제도를 무효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져서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핑계를 가지고라도 자기 아내와 헤어지곤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악을 시정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의 최초의 이적은 혼인 잔치에서 행하여졌던 것이다. 이와같이 예수께서는 결혼이 깨끗하고 더럽힘이 없이 보존 될 때에는 신성한 제도임을 세상에 선포하셨다.” - *원고모음* 10권, 19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38

1. 성경은 여자의 지으심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2. 결혼은 언제만이 참으로 즐거운 의식이 될 수 있으며 왜 그런가?
3. 남편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4. 아내는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5.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결혼이 평생의 서약이 되도록 하신 증거는 무엇인가?

체코슬로바키아 대회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체코는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서 정식 명칭은 체코공화국이며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 2개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함에 따라 탄생한 내륙국이다. 북쪽으로 독일·폴란드, 서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슬로바키아와 접한다.

주민의 81.2% (1991년 3월 현재)가 서(西)슬라브 민족에 속하는 체코인(人)으로, 단일민족국가라 할 수 있다. 체코인 다음으로는 모라비아인(13.2%), 슬로바키아인(3.1%)이 많은데, 특히 남(南)모라비아 지방에는 총인구의 49.4%를 모라비아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민족으로는 폴란드인·독일인·슬레지엔인·집시인·헝가리인·우크라이나인·러시아인 등이 있다. 언어는 서(西)슬라브어(語)에 속하는 체코어가 공용어로 체코어를 사용하는 주민이 전인구의 95.8% (1991년 3월 현재)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 슬로바키아어(2.3%)·폴란드어(0.5%)·독일어(0.4%)·헝가리어(0.2%)·우크라이나어·루마니아어 등이 일부 사용된다. 비즈니스 언어로는 영어와 독일어가 주로 사용된다. 공산당 정권 때에는 종교가 쇠퇴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이다. 현재는 전체 인구의 약 85%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톨릭교도이고 프로테스탄트도 소수 있다.

체코에서 우리 사업은 개혁운동의 바로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1923년에 이 나라에는 43명의 교인들이 있었으며 그후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들은 더 이상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 목회자는 죽임을 당하였고 양떼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지도자는 감옥에서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각 시대의 대쟁투 사본을 남편에게 전해주었고 그는 읽고 또 읽으면서 그의 자리를 대신할 젊은 일꾼들을 훈련시키지 못한 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자백했고 참된 개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시적인 문장들을 작성해서 회중에게 기별들을 전하기 시작했고 회중 가운데 150명에게 그것들을 노래로 부르도록 했다. 신자들은 그의 기별로 위로를 받게 되었고 또한 그것들을 작곡하여 찬미하게 했다. 교회는 지도자 없이 그렇게도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는 주께 약속드린 대로 즉시 청년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1995년 체코는 대회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그룹의 교인들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어두운 세월을 통하여 죽어간 자들의 남은 무리가 되었다. 우리는 집회소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셋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그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특별한 연금이 수합될 때 관대하게 도와 주기를 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형제자매들로부터-

그리스도인 가정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시 144:12].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능력의 증거는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가정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더 잘 권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령에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산 증거이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4권, 304.

참조할 연구교재: 새자녀 지도법, 318-325, 434-443.

일요일

5월 31일

1. 지상의 작은 천국

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고전 7:3, 4; 갈 6:2; 엡 5:33.

“그대들은 그대들이 원하는대로 강제하고자 피차 시도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 간의 사랑을 존속시킬 수는 없다. 고집의 표현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파괴할 것이다. 그대들의 결혼 생활이 하나의 언쟁이 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렇게 되면 그대들은 다같이 불행해질 것이다. 말에 친절하고, 행동에 부드럽고, 그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라. 그대들의 말을 잘 관찰하라. 그것들이 선이나 악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음성에 날카로움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대들의 연합된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들어가게 하라.” -교회증언 7권, 47.

나. 영감적인 말씀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시 128:1-6; 사 61:9. 가정은 어떻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거하시도록 할 것이다. 가정은 말 그대로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땅위의 작은 천국, 애정이 가혹하게 억눌리는 대신에 계발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사랑과 동정과 상호간의 진정한 예절을 계발하는 데 달려 있다.” -교회증언 3권, 539.

2. 부모와 자녀들

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자녀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시 127:3; 잠 17:6; 사 54:13.

“자녀들을 마치 우리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자녀들은 주님의 기업이며, 구속의 경륜 속에는 우리의 구원과 아울러 그들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부모들에게 위탁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을 받고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의 사업을 행할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 *재림신도의 가정*, 280.

“자녀들은 주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주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엄숙한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야비하고, 거칠고, 예모가 없고,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목적도 아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회의 상황은 말세의 징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 *새자녀 지도법*, 229.

“[자녀들은]... 정욕과 허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 - *재림신도의 가정*, 279.

나. 저희 자녀들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부모들에게 주께서는 무슨 분부를 하셨는가? 신 6:4-7; 11:18, 19; 잠 22:6.

“한 주일 내내 부모들은 가정이 학교가 되어 자녀들이 위에 있는 공정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입밖에도 내지 말라. 정신을 사납게 하지 말라. 부모들이여 한 주일 동안, 자녀들을 주사 훈련시키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듯이 살라. 집에서 작은 교회를 훈련하여, 안식일에 모두 성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하라. 매일 아침, 저녁 그대의 자녀들을 그분의 피로 사신 유산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의무이며 특권인 것을 가르치라.

부모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만드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 성경절들을 자주 외우게 하고,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준비시키는 성경절들을 외우게 하라. 귀한 말씀들은 자주 반복시키는 것이 좋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시 62:5).” - *교회증언* 6권, 354.

3. 다섯째 계명

가. 자녀들은 저희 부모들에 관하여 무엇을 행하도록 요구 받았는가? 출 20:12; 엡 6:1-3.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이란 없다. 이 엄숙한 의무는 모든 아들 딸을 망라하며, 주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주실 땅에서 장수함을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이기도 하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문제가 아니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대가 순종하면 그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대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대는 그 땅에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 *재림신도의 가정*, 292, 293.

“자녀들이여, 그대들은 영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지 말며 그들로 그대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애통함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가 만일 부모에게 사랑과 순종을 드리지 않음으로 범죄하였으면 이제부터 과거를 속죄하기 시작하라. 그대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으니 그것은 곧 그대의 영생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청년 지도자*, 1893.6.22.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 중 하나는 무엇인가? 롬 1:30; 딤후 3:2.

“이 시대의 자녀들 가운데 존재하는 죄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다[딤후 3:2, 4]. 그리고 이런 상태는 예언의 주제에 명시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징조들임을 알게 한다.” -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서신들*, 53.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명령하신 계명과 훈계가 풍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아 시대와 유년 시대, 그리고 청년 시대를 거쳐 성인 남녀가 되기까지 그들을 지도해 왔으며, 이제는 화평과 행복을 위해 그대들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부모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신성한 의무를 청년들에게 기억나게 한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은 크게 무시되어 왔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101.

4. 삼중능력

가. 가족과 관계된 무슨 예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되어야 할 것인가? 말 4:5, 6; 눅 1:17.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과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잠 4:23)은 심장이며,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있다.” - 치료봉사, 349.

“세상에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가정 신앙에 관하여 부모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들의 큰 개혁 운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로 시작되어야 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제시되고 남녀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임을 자각하게 하고 그들 자신만을 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결정할 책임도 있음을 보여주라.” - 새자녀 지도법, 556.

나.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의 행복한 가족으로 연합할 때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인가? 시 144:12.

“이생에서 유용하고 행복한 생애를 누리고 내세에서 고상한 봉사와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자녀들을 최선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매 단계마다 인간의 지혜 이상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에게 거룩한 신탁물이 위탁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라. 모본의 힘은 매우 크다. 만일 그대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적절한 교제를 선별하는데 실패하고 의심스러운 도덕성을 가진 청년들과 사귀도록 용납한다면 그것은 자녀들로 부패의 공과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81.9.13.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엄숙한 책임을 갖고 있다. 자녀들이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도록 자녀들을 돕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이 그대들의 의무이다. 예수께서는 그대들의 협력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시다.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여 아이의 지배를 받고, 너무 사랑하여 벌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구실로 아이를 교정시키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요 친절히 행하는 것도 아니다. 자녀로 하여금, 자기와 모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품성의 특성을 자라도록 허용하는 것이 무슨 사랑인가? 이러한 사랑은 버리라! 진정한 사랑은 그 자녀의 현재와 영원의 유익을 바라본다.” - 리뷰 앤드 헤럴드, 1895.7.16.

5. 상급을 받는 충실한 사업

가.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에 부모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저희 자녀들은 무엇이라고 증언할 것인가? 사 8:18.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펼쳐지고 크신 심판장의 ‘잘하였도다’ 라는 선포와 함께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이 이긴 자의 머리에 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운집한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들고 그들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저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교훈과 기도가 복을 입어 나의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30.

“어머니들이여,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대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실 것임을 기억하라. 주님의 능력과 이름을 힘입어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할 수 있다. 능력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라.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가르치라. 항상시키며 고상하게 하는 감화를 끼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도한다면 그들은 가장 강렬한 시험도 능히 대항할 힘을 가질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이기는 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 *새자녀 지도법*, 172, 173.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무엇이 연합된 그리스도인 가정의 상급이 될 것인가? 시 132:12; 계 5:13.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그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된 그대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을 보는 기쁨인 것이다. 여기에 그대의 자녀들이 있다. 그들의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씌어졌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노력함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어머니들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둔다.” - *새자녀 지도법*, 567, 56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42

1.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의 특징인가?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양육함에 있어서 몇가지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를 말하라.
3. 부모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는가?
4.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은 왜 말세에 진기하게 될 것인가?
5.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는가?

참된 교육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서적의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시 111:10)다. 교육의 참 목적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교회증언 5권, 322.

참조할 연구교재: 교육, 13-27.

일요일

6월 7일

1. 에덴에서

가. 무엇이 참된 교육의 정의인가? 시 111:10; 잠 9:10.

“참된 교육은 그것이 즐겁든지 그 반대이든지 그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적, 도덕적, 육체적 힘을 준비시키는 것이며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감정과 지성과 영혼의 모든 습관과 행위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3권, 228.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595.

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교육을 위해 무슨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는가? 창 2:8, 15.

“창세 때 제정된 교육 제도는 모든 후세를 통하여 인류의 교육에 대한 모범이 될 것이었다.” -새자녀 지도법, 294.

“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 아버지 하나님과 상의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열매 맺는 나무들을 돌보는 일과 초목들을 재배하고 손질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계획하셨다. 유용한 노동은 그들에게 방벽이 될 것이었으며 세상의 역사가 마칠 때까지 온 세대를 통하여 영속될 것이었다. -영문시조, 1896.8.13.

2. 선지자들의 학교

가. 더욱 경건한 교육계획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무엇이 마련되었는가? 삼상 7:15, 16; 왕하 2:2-5, 15.

“이들 중 길갈과 벰엘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의] 세 학교가 기록에 남아 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그와 엘리사는 이 훈련소들을 방문했다.” - 선지자와 왕, 224, 225.

“이 ‘선지자 학교들’에서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정통할 뿐 아니라 그들이 친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교육을 받았다.” - 영문시조, 1882.7.20.

나. 선지자들의 학교에서 배운 주요 교과들을 말하라. 시 86:11; 요 17:3.

“이들 [선지자들의] 학교의 주요 학과는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에게 주신 교훈과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음악과 시가였다. 교수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과 종교적 진리를 덜 가지고 졸업하는 오늘날의 신학교들의 교수 방법과는 훨씬 달랐다. 이러한 고대의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배우는 것이 모든 학과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었다. 거룩한 역사의 기록에서 여호와와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다.” - 그리스도인 교육, 62.

“[선지자들의 학교에 있는 자들이] 일반 학교들에서 연구하는 책들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무엇을 가르침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다.” - 스칼딩과 마켄 모음집, 357.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육의 대부분은 구두(口頭)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년들은 히브리 책들을 읽는 법을 배웠으며, 양피지의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들이 그들의 연구 과제로 제공되었다... 성소 봉사를 통해서는 표상에 의해 설명된 중요한 진리들을 알 수 있었으며, 믿음으로 그 제도 전체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을 보았다. 학생들의 마음에는 헌신의 정신이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며, 그들의 창조주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렇게 성화된 지성은 하나님의 보고(寶庫)로부터 옛것과 새것을 찾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예언과 거룩한 노래 가운데 나타나셨다.” - 교육, 47.

3. 유용한 직업들

가.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육을 어디서 받으셨는가? 마 13:54-56.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는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교사이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공생애에 들어가신 후에 그는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 9:4)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른다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수고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이 연약하고 일에 능숙하지 못한 까닭은 이러한 훈련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시대의 소망*, 70-73.

나. 우리는 성경과는 별도로 참된 교육을 위한 적합한 재료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살후 3:8-10.

“노작 교육에 대해서는 전보다도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고의 지적·도덕적 교양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의 발육과 실업 교육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설비를 갖춘 학교들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제조업-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유용한 실업을 포함시켜서-또한 가정 경제, 영양 요리, 재봉, 위생적인 의복 만들기, 환자의 치료, 그 밖의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정원, 작업장, 치료실을 준비해야 하며, 모든 일은 반드시 숙련된 교사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한다.

일은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누구나 여러 가지 방면의 기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것이나, 적어도 어떤 한 가지에 대하여는 숙련되는 것이 절대로 요긴하다. 모든 청소년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에 어떤 종류의 실업이나 직업의 지식을 습득하여, 필요하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되어야 한다.” - *교육*, 218.

4. 교육에 있어서의 성경

가. 성경에 대한 근면한 연구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시 119:98-101; 잠 2:1-5.

“다른 모든 책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되고 위대한 교과서가 되며 교육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은 이전의 습관이나 관습과는 상관없이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는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회증언 6권, 131, 132.

“성경은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가르친다. 성경은 장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형성해야 할 품성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390, 391.

나. 우리 자신이 연구하고 교육을 받을 때 무엇이 우리의 우선권이 되어야 하는가? 사 55:2, 3; 시 25:4, 5.

“오늘날 청년 남녀들은 마지막 날의 대화염 속에서 불타 없어질 나무나 덩불과도 같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긴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육에 아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많은 학생들은 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경외와 존대로 대했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다.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얻으려는 노력 때문에 저들의 신앙심은 빛을 잃게 되었다. 성경은 저들의 교육에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다만 불신사상으로 오염되고 근거가 없는 학설로 보급된 서적들만이 저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446, 447.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전과 습관의 희미한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정오의 태양이 그 광채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상의 가물거리는 햇불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391.

“우리 학교에서 성경을 불신(不信)의 샌드위치 속에 끼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교육의 기초가 되고 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많이 알게 되어도 아직도 더욱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것 중에 첫째와 마지막과 최고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참된 영적 성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474.

5. 영원을 위한 교육

가. 영감적인 말씀은 성경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딤후 3:15, 16.

“성경은 영원을 통하여 귀중한 보석처럼 더 밝고 밝은 빛을 비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받아들인 귀중한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지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해럴드, 1888.4.10.

나.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구할 주제가 되며 누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가르칠 것인가? 마 23:10; 엡 6:9; 고전 2:9.

“[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애(贖罪愛)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企圖)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7.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음성을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시 107:8)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는가?” -교회증언 5권, 31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46

1. 그리스도인 교육의 무슨 중요한 국면이 오늘날 때때로 간과되고 있는가?
2. “선지자들의 학교”는 왜 그들의 전도 사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3. 예수께서 교육을 받으신 방법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
4. 어떤 의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학교에서 성경이 때때로 무시되고 있는가?
5. 교육은 영원을 통하여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예언의 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시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다.” -교회증언 4권, 230.

참조할 연구교재: 가려뽑은 기별 1권, 24-39.

일요일

6월 14일

1. 태초에

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교통하셨는가?
창 3:8, 9. 그분은 부조들과 어떻게 교통하셨는가?

“그 순결한 부부[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부(慈父)와 같은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창조주와의 교통이 허락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어두운 장벽이 없었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207.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는 다 복음을 이해하였다. 저들은 인간의 대치물이시요 담보물이 되신 분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았다. 이 고대의 성인들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있던 구주와 교제하였고 그들 중에 몇 명은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부조와 선지자, 366.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출 33:11; 민 12:7, 8.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정치가들과 위정자들보다 지혜와 성실성에 있어서 출중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를 믿도록 하지 않고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보였다.” -성경주석[E. G. 화잇], 1권, 1113.

2.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선지자들

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이 된 후에 주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드러 내시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삼상 9:9; 벧후 1:21.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계 19:10).” -부조와 선지자, 366, 367.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다. 그가 상세히 설명하신 원칙들은 구름기둥 으로부터 모세에게 전해졌으며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로서 말하고 기록한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7.7.

“하나님의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신 빛을 우리들이 충만히 받아들이 면 들일수록 마치 영원한 보좌가 심오하고 확실한 것처럼 고대의 예언의 진리가 더욱 깊고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 어 말할 때에 그 확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 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들 자신을 성령의 감화권 내에 두어야 한다.” -가려뽑은 기 별2권, 114.

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약속 되었는가? 민 12:6; 암 3:7.

“하나님께서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 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써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 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 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교회증언 5권, 455.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하여 받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기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교회에 보낸 증언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차지하고 있어야 할 현재의 의무와 위치 를 분명하게 밝혀 주는 데 도움이 된 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교회증언 8 권, 298.

3. 선지자의 역할

가. 선지자들이 거룩한 계시를 받을 때 무엇이 참된 선지자들의 신체적인 상태인가? 민 24:2-4; 욥 33:14-16. 받아들인 계시와 함께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합 2:2.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 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시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빛의 흐름처럼 발전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125.

나. 장래의 사건들을 예고하는 외에 무엇이 선지자들의 의무인가? 호 6:5; 12:10, 13; 느 6:7.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책망과 경고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졌다. 백성들은 각성되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를 낮추고, 참된 회개로 그분께로 돌아왔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용기를 주는 기별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을 포로의 상태에서 건져내고 그분의 은총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교회증언 5권, 468.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사업은 어떤 면에 있어서 엘리야의 사업과는 매우 달랐다. 엘리야에게는 정죄와 형벌의 기별이 위탁되었고 그는 대담무쌍한 책망의 목소리로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호소하였다. 엘리사의 사명은 보다 평화스러운 사명이었고 엘리야가 시작한 사업을 세우고 굳게 하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영감의 기록은 백성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그를, 선지자의 생도들에 둘러싸인 그를, 이적과 봉사로 병을 고치고 기쁨을 가져오는 그를 묘사하고 있다.” - 선지자와 왕, 235.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 사이에 연결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시대를 드러내기 위하여 앞에 섰다. 그의 사업과 봉사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로 향하게 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했다.” - 예언의 신 2권, 57.

4. 여선지자들

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봉사하도록 부르신 여자들을 말하라. 출 15:20; 사 4:4; 왕하 22:14; 눅 2:36; 행 21:8, 9.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는 그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였다. 그녀는 여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행정장관들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녀에게 권면과 공의를 구하였다.” - *하나님의 딸들*, 37.

“여선지자 홀다가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마음에 가득한 왕은 홀다를 생각하였고 왕은 이 택하신 사자를 통하여 이제 바야흐로 멸망하려는 죄 많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여호와께 문의하기로 결심하였다.” - *하나님의 딸들*, 44.

나. 두 사람[윌리엄 포이와 하젠 포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밝히는 것을 거절한 후에 엘렌 골드 하몬에게 무엇이 보여졌는가? 그는 자신에게 무슨 직함이 있다고 생각했는가?-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첫 이상이 주어진 것은 1844년의 시기가 지난 지 얼마 후의 일이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한 자매를 방문 중이었는데,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었다. 우리 다섯 명의 여자들은 가족 제단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 결코 느껴 보지 못한 형태로 내게 임하였다. 나는 빛으로 둘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상에서 점점 더 높이 올라워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에 있는 재림 신자들을 찾기 위하여 돌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 때에,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한 음성이 내게 들렸다. 그 음성을 따라, 나는 눈을 들고 지상에서 위로 높이 뻗쳐진 끈고 좁은 한 길을 보았다. 이 길에는 재림성도들이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 *교회증언* 1권, 58, 59.

“여선지자라는 주장이야말로 내가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주장이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칭호로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저들과 닮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사업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 관여된 것이므로 ‘사자(Messenger)’라는 명칭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자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맡아 수행하는 자이다.” - *가려뽑은 기별* 1권, 34.

5. 참된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표적이 되는 신임장 중 하나는 무엇인가?
 엡 4:11; 계 12:17; 19:10[하단].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신은 교회를 안내하고 권면하는데 손을 잡고 가며 교회는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정함을 받을 때마다 진리의 길에서 그녀를 지도하도록 예언의 신이 주어졌다...

남은 교회는 당신의 율법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언의 신은 항상 하나님의 참 백성을 현저하게 나타냈으며 시금석은 통상적으로 현재의 계시로 주어진다.” -로마 린다에 보내는 기별, p. 33.

“증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점들, 우리 입장의 기둥들에 관하여 의심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심이, 그리고 마침내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한 때 믿어 온 증언들이 의심을 받고 포기될 때, 사단은 그 속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공개적인 반역, 치료가 불가능하고 멸망으로 증언을 고하는 반역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일 때까지 그의 노력을 배가한다.” -교회증언 4권, 211.

“만일 그대들이 증언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98.

“사단의 최후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296.

나. 참된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절할 위험이 있는 한편, 또한 무슨 경고가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마 7:15; 24:24, 25; 벰후 2:1, 2; 요일 4: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48

1.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교통하셨는가?
2.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가?
3. 선지자의 일반적인 의무들을 말하라.
4. 엘렌 화잇의 사업은 고대 선지자들의 그것과 어떻게 비슷한가?
5. 증언들이 우리의 뜻과 길과 혹은 실천면에서 어긋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언에 나타나는 세계의 4대제국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 45:21].

“모든 사람을 아시는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바로 그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며 만일 그분이 보시기에 장래의 사건들을 베일로 가리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제일 좋은 것을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시조, 1889.8.19.

참조할 연구교재: 선지자와 왕, 492-502.

일요일

6월 21일

1. 바벨론 왕국

가. 선지자들은 무슨 말로 고대 바벨론의 아름다운 도성을 묘사했는가? 사 13:19; 14:4. 바벨론의 영광은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단 4:30.

나. 느부갓네살은 그의 왕국의 융숭함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무슨 꿈을 꾸었는가? 단 2:1, 26-29, 31-38.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종말에까지 미칠 사건들을 열어 보여 준 큰 우상의 꿈은 그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를 지지해야 할 관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해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설립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다.” -선지자와 왕, 503.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지배하는 능력이 되신다. 그는 때와 계절을 변화시키시며 당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들을 세우시고 또한 폐하신다.” -원고 모음 1권, 49.

2. 메대-바사

가.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그 예언을 성취하도록 누가 인간 대리자가 되었는가? 사 45:1, 2; 단 5:30, 31.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으려면 그들의 구원을 예고한 예언들을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왕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셔서 그의 회개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셨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7.3.21.

나. 메대의 다리오 왕의 통치 때에 무슨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가? 단 6:13-22. 메대바사 왕국 시대에 무슨 중요한 일이 성취되어야 했는가? 스 5:13; 6:1; 7:12, 1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위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때문에 그는 사자 굴에 던짐을 받는다. 그리하여,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까지 기도를 계속한다.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곳에서 잊어버리셨던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강력한 하늘 천사들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므로, 그 사자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해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무서운 굴속에서 모든 일은 평화로웠다. 왕은 다니엘이 무사히 보호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나오게 하고 존귀하게 대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62.2.18.

“하늘의 최고의 대리자들이 왕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고레스의 조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가장 활발히 일한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었다.” -선지자와 왕, 572.

“한 번은 메대 바사 영토의 주(州) 총독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건물의 복구를 허락한 사람의 이름을 요구하였다. 만일 그 때에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지도를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이 질문은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왔을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答詔)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스 5:5). 총독들은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들었으므로 그 당시의 메대 바사의 통치자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그 경비를 왕의 곳간에서 지불하라고 명령한 고레스가 내린 최초의 조서에 그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7.12.26.

3. 그리스

가. 신상의 어떤 부분과 물질이 세계의 세 번째 제국을 상징했는가? 단 2:39. 메테바사는 왜 종말에 이르렀으며 그리스가 그 뒤를 따랐는가?

“메테바사 왕국이 하늘의 진노를 받은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짓밟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 메테바사 안에는 참람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감화가 편만하였다. 그 다음 왕국들도 더욱 천박하고 부패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퇴보된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도덕적 가치를 재는 저울은 점점 더 낮아져 갔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0.2.6.

“거의 모든 이교주의적 신앙은 죽은 자의 신격화를 현저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또한 죽은 자와의 가상적인 교통도 생각하고 있다. 신들이 저들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의견을 물을 때는 신들이 대답을 해 준다고 믿었다. 이러한 대상 인물은 헬라나 로마의 유명한 현인들이 있다.” -복음전도, 603.

나. 앞서의 두 제국들의 본을 따라, 그리스 왕국은 어떻게 망했는가? 단 7:6, 12; 8:5-8.

“활동 무대에 등장했던 각 나라들은 ‘순찰자’요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지상의 각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된 것이다. 예언은 세계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의 흥망을 묘사하였다. 약소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각 나라들에서도 역사는 반복되었다. 나라마다 그 시험기간이 있었고, 모두 시험에 떨어졌고, 그 영광은 쇠하였고 권력이 떠났으며, 그 자리는 다른 나라에 의해 차지 당하였다.” -교육, 176, 177.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나타난 열국의 흥망성쇠에서 우리는 단순한 외적, 세속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바벨론과 그 모든 권세와 장려함, 곧 이제까지 우리들의 세계에서 결코 본 일이 없고 그 시대 백성에게 매우 권고하고 영속할 것처럼 보이던 권세와 장려함이 얼마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가! ‘풀의 꽃과 같이’ 바벨론은 망하였다. 메테 바사 나라와 헬라와 로마 나라도 것처럼 망하였다.” -믿음으로 살리라, 345.

4. 로마제국

가. 신상의 어떤 부분이 로마제국을 표상했으며 그것은 무슨 물질로 되어 있었는가? 단 2:40. 무엇이 로마를 특징지었는가?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진] 신성의 금속들은 다른 나라들을 상징하면서 머리에서 내려갈수록 그 순수함과 가치가 떨어졌다.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옆구리는 동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 이와같이 그들에 의해 대표된 나라들도 가치가 떨어졌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00.2.6.

나. 로마 통치 아래서 무슨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눅 2:1-7; 21:20, 21. 결국, 로마제국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피곤한 여행객들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을 하라는 명령에 따라 다윗성을 향하여 여행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리라고 예언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휴식처를 찾았으나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재산이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환영을 받고 편히 쉴 방을 찾았으나 이 피곤에 지친 여행객들은 짐승들이 거하는 초라한 곳에서 피난처를 구해야만 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이곳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72.12.17.

“만일 백성들이 당신을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돌이키셨을 것이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의 제재 받지 않은 맹렬한 감정이 멸망을 자초하였다. 그들은 맹목적인 분노로 서로를 멸하였다. 그들의 반역적이요 완고한 교만심은 정복자 로마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 그 터는 밭으로 경작되었다. 유대 자손들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임을 당하였다. 수백만 명이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 갔다.” -선지자와 왕, 712, 713.

“강대한 로마제국은 쪼개졌고 그 몰락한 곳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어났다.” -청년 지도자, 1903.9.22.

5. 나뉘어진 열국

가. 로마왕국은 철로 된 다리로 상징되었다. 무엇이 발의 물질을 구성했는가? 단 2:41, 42.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분리의 상태에 있는 발가락으로, 부서져 버릴 재료로, 또한 도저히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예언은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 앞에 박두해 있는 것을 알려 준다. 그것은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 교회증언 1권, 361.

나.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있는 것에 관하여 무엇이 예고되었는가? 단 2:43. 나뉘어진 열국시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단 2:44, 45; 7:18, 27; 시 37:29.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던 그 우상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있던 지상 왕국들의 퇴락 현상을 상징하는 한편, 그것은 이 왕국들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종교와 도덕성의 퇴화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상징한다. 열국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비례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약해진다.” - 율고모음 1권, 50.

“[미 4:8 인용됨]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되찾으셨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 예언의 신 4권, 489.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占有)하기 위하여 분투해 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 부조와 선지자, 342.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간 7:49

1. 거만한 느부갓네살은 필경 무슨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가?
2. 메대의 다리우스나 바사의 고레스처럼 이방 통치자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로부터 무슨 경고에 주의해야 하는가?
4.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에게 임한 비통한 재앙을 묘사하라.
5. 철과 진흙이 섞인 의미는 무엇이며 이 시대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첫째 안식일 연금



4월 4일

**벨리즈
대회 선교본부**

(4페이지 참조)

5월 9일

**위스퍼링 파인즈
크리스찬 학교**

(30페이지 참조)



6월 6일

**체코 슬로바키아
대회 본부**

(51페이지 참조)